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우리교회 10년사 출간된다

- 우리교회 10년 역사를 한 눈에 -

오는 11월25일로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교회는 3년 전 역사 편찬위원회를 발족시켜 그 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지난 10월말에 집필을 완료하고 검독을 끝낸 상태이다. 약 500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십년사에는 제1부 서사에서 성경적 배경, 상황적 배경, 신학적 배경 설명이 있는 후 서울교회가 있기까지의 상황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 제2부는 현황으로 2001년 8월31일 현재 조직과 예배, 청지기로 구성

되었으며 제3부는 우리가 남긴 흔적들 11가지를 나열하고 제4부는 연도별로 10년의 자취를 더듬었다. 제5부로 기관들 설명이 있고 제6부로 예배당 건축, 7부 매체들, 8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부록으로 연도별 직분자 명단이 실린다. 사진첩이 첨부된 십년사는 10주년 기념일에 출간될 예정이다.

2002년도 교회조직 발표하다

우리교회 당회는 2002년도 당회 조직 및 기관 일꾼을 임명하고 교회학교 부장, 부감 그리고 찬양대 대장, 부대장을 각각 발표했다.(3면 도표참조)

다른 부서의 일꾼 임명과 함께 12월 첫 주부터 집사, 교구일꾼, 교사, 찬양대원 등 임명식을 하게 된다.

제29회 서울 강남노회 정기회 열린다 11월6일 우리 교회당에서

서울 강남노회 제29회 정기회가 11월6일 오전9시 우리교회 본당에서 개회예배와 성찬식을 갖고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회무처리를 한 후 다시 본당에서 목사 안수식에 이어 폐회예배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피택장로 마지막 면접

지난 6개월 동안 강 훈련을 받아 온 피택장로들은 노회고시를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고 소기의 과제물을 당회에 제출하고 당회장과의 개별 면담을 거치는 상태다. 오는 9일(금) 당회원들과의 면담을 마지막 통과하면 오는 25일(주일) 장로 안수식을 갖게된다. 이날 설교는 이종성 목사(한국 기독교 학술원장), 권면은 이수중 목사(온누리 교회)신인현 목사(임마누엘 교회)가 한다.

10 Years Round Table Members

한국교회 갱신연구원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10년간 계속 참여한 충성스런 종들이 19명으로 밝혀졌다. 본 원에서는 이들을 격려하고 존귀히 여기는 뜻으로 10 Years Round Table Members로 인증키로 하고 이번 학기 종강식에서 기념패를 수여키로 했다.

부목사·에바다부 교육목사 청빙한다.

교인수의 급증으로 부목사 0명, 에바다부(농아인)를 지도할 교육목사 청빙을 위한 서류 접수가 내일(11월5일)로 마감케 된다. 7일(수)에 서류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한 후 9일(금)에 면접을 하여 최종 확정케 된다.

남선교회 여전도회 11월중 총회

2002년도 임원 선출을 위한 남선교회, 여전도회 총회가 11월중 각 지회 형편에 따라 갖게된다. 총회 결과 보고는 12월1일까지 전도위원장에게 하면 된다.

지난주 우리교회는



- ① 우리교회 본당에 설치될 파이프오르간의 전경
- ② 11월2일(금)에 있었던 성경암송대회 참석자들
- ③ 지난주일에 있었던 중등부의 노방전도

2001 성경암송대회 결선

해마다 종교개혁 주간에 실시되는 성경암송대회가 올해는 요1서 1장~5장까지를 범위로 지난 주일 각 부 예선을 거쳐 지난 2일(금) 결선을 했다.

이날 최우수상에는 이민웅(고등부), 우수상 김소연(유년부), 장려상 박연경(유치부), 이이래(유년부), 노창훈(청년부) 전금녀(장년4부)등 6명이 수상하였다.

11월 행사

- 11.2 (금) 성경암송대회 결선
- 11.3 (토) 정기 당회
- 11.4 (주) 찬양대 헌양예배
- 11.6 (화) 강남노회 제29회 정기회
- 11.9 (금) 피택자 당회고시 및 면접
- 11.11 (주) 추수감사찬양예배 (중고대청부)
- 11.12 (월) 제20학기 목회자세미나수료식
- 11.13 (화) 주부대학 수료식
- 11.15 (목) 경로대학 수료식
- 11.18 (주) 추수감사찬양예배 (가브리엘)
- 11.28 (주) 추수감사예배 성찬식 교회설립 10주년 감사 장로임직식
- 11.29 (목) 정체성위원회

고3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11월7일(수) 오후1시 601호에서 고3 및 수험생을 위한 특별기도회로 모인다. 학부모와 기도후원자들은 이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번주 말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개역개정판 요 17:23)

-태신자 명단-

(2001년 11월 2일 현재)

홍근영 고슬기 고미선 고정일 김찬식 전재규 김수정 조순교 채종완 강희순 채경숙 안현경 고현희 채상욱 김복동 박삼순 김영은 김모은 하극수 하경수 김숙희 김순자 김세철 김화순 이정구 김정미 이동윤 정은희 김관옥 김관숙 홍동기(다음호에 계속)

I in them and you in me. May they be brought to complete unity to let the world know that you sent me and have loved them even as you have loved me.(NIV Jn 17:23)

이사야서 강해

파수꾼의 노래

(이사야 52장 7 - 12절)

평화에는 하나님과의 평화(peace with God)와 하나님의 평화(peace of God)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 말은 원수가 없어진다는 뜻도 있지만 주님이 주님의 백성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중운 목사

본문은 구원의 날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과 파수꾼의 노래와 예루살렘도 같이 노래할 것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포로들에게 빨리 떠나 돌아가기를 권합니다.

1.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와 파수꾼의 노래 (7-8절)

본문 7절에는 다섯 가지의 귀한 단어가 나옵니다.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하나님의 통치' 이 모든 단어는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좋은 소식'은 기쁜 소식,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소식, 희망이 끊어졌던 사람에게 희망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멀리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킨 것이고 가깝게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석방되어 돌아온다는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치는 선발대의 외침을 가리킵니다.

7절의 '가져오며'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져오며'는 헬라어로 '유양겔리온'이라고 읽으며 복음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통치하심을 말하지만 신약 시대에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릴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7절), 그들의 행실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그들이 전파하는 소식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헬라어로 '나우'라고 읽는데 이것은 때에 맞는다(timely, seasonable)는 뜻입니다. 필요한 때에 메신저(messenger)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산 위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나타난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본문에는 좋은 소식의 성격을 3가지 분사형으로 설명합니다.

①메신저가 평화를 선포한다
소식을 선포하는 메시지의 큰 주제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평화에는 하나님과의 평화(peace with God)와 하나님의 평화(peace of God)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 말은 원수가 없어진다는 뜻도 있지만 주님이 주님의 백성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②메신저가 좋은 것을 선포한다
좋은 것이란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죄인을 구원하는 좋은 것, 즉 축복을 말합니다. 마침내 메신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합니다.

③메신저가 전하는 내용은 '시온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

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천국입니다.

'파수꾼들의 노래 소리'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시온의 파수꾼'은 선지자들이 아니고 시온성을 지키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성벽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어느 경우에 재건축된 성이 있을 것을 추측하며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네 파수꾼들의 소리보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이다"(8절).

메신저들이 산 위에 서서 평화를 외칠 때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함장으로 외칩니다. 그런데 파수꾼은 달려오는 선발대의 모습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모습,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선두에서 서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주 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시온의 파수꾼을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

평화와 좋은 것과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입니다. 파수꾼들은 예언으로 기다리던 것의 성취, 즉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노래하며 기뻐합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오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의 기쁨은 찬양으로 표출됩니다.

2. 예루살렘도 같이 노래하라(9-10절)

바벨론 포로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곽은 무너지고 왕궁은 불탔습니다(왕하 25:9). 또 시민들의 주거지는 오랜 방치로 황폐되었습니다. 그러나 황폐한 가운데 있는 주민들도 파수꾼의 노래에 참가하여 기쁜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성을 구축하시어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10절).

하나님은 열방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레스를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그 곳에 잡혀있던 포로를 해방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중에 성취된 일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만민이 이를 알게 될 일의 그림자입니다. 이사야는 구원을 '위로', '구속'(9절), '거룩한 팔을 나타내심'(10절)으로 표현했습니다. 소망이 없던 죄인들에게 소망의 위로를 주며 내가 죽는 대신 남이 죽으므로 구원을 받은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팔)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9절의 '함께 노래할지어다'는 명령형입니다. 지금은 황폐한 가운데 있

지만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그러므로 예루살렘도 함께 노래를 크게 불러야 합니다. 구원 운동은 기쁨과 감사의 찬양 운동입니다.

3. 포로에서 빨리 떠나 돌아가라(11-12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함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와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11절).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켰으니 빨리 그 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11절의 부정함 것은 바벨론의 우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떠날 때 우상을 만지지도 가지고 나오지도 말고 바벨론의 우상주의에서 급히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떠나야 할 이유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가장스러운 이교주의의 분위기로부터 깨끗이 떠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영접한 후 즉시 세상을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떠날지어다'가 두 번 반복된 것은 떠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성도들에게 정결운동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이것은 강하고, 급하게 하라는 권면입니다. 구원운동은 죄악을 떠나는 운동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겼던 성물은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야 성물을 멜 수 있었습니다(왕하 29:34). 다시 말해서 구원 운동은 성결 운동입니다. 성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12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나올 때 황급히 도망치듯 나오지 말고 당당하게 나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조상이 출애굽 할 때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과 뒤에서 인도하시고 호위하시는 가운데 애굽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천성을 향해 가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지극히 좋은 말씀이므로 복음을 믿는 영혼도 복이 있지만 전하는 발도 복됩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죄악을 떠난 생활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천성으로 가는 자는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면 안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증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주의 사명자대회 각 주력 부서 . 교구 안내

▶ 금주의 사명자대회 중 금요기도회 주관부서

월 일	교 구	전도회	교회학교	찬양대
11.9(금)	전교구	엘리아, 에스더	유아부, 유치부, 새가정부	시 온

▶ 금주의 사명자대회 중 70인 전도대 주력 부서

월 일	교 구	남선교회/여전도회
11.10(토)	7.8교구	베드로, 비비

▶ 금주의 사명자대회 중 24시간 연속 기도회 주력교구

11.4(주)	11.5(월)	11.6(화)	11.7(수)	11.8(목)	11.9(금)	11.10(토)	11.11(주)
8교구	5교구	12교구	7교구	2교구	9교구	4교구	9교구

2002년 교회조직

▶ 위원회

	당회서기	예배(위)	찬양(위)	교육(위)	교구(위)	전도(위)	선교(위)	구제(위)	관리(위)	재정(위)	건축(위)	통신(위)	인사(위)	상조(위)	치량관리	식당관리
위원장	박철훈	최중시	노문환	이영기	박두호	왕경래	김영준	임훈규	하영수	오정수	성준경	윤찬오	김광신	이관규	이복규	윤찬오
서기				노송성						김영준			노문환			
회계				김광신						임훈규			오정수			

▶ 기관

	출판국	장학회	갱신연구원	제1권사회	제2권사회	스데반회	비전2020	경로대학	주부대학	성경대학	상담실	멀티미디어	필그림예술단
부서장	노송성	김상철	박철훈	회장: 백영희 부회장: 김명숙	회장: 최영혜 부회장: 이영희	신용식(간사)	이변생	왕경래(학감)	이완형	윤봉준	임상현	조철기(단장)	단장: 신용식 부단장: 정동호 인분선

▶ 교구 일꾼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5교구	6교구	7교구	8교구	9교구	10교구	11교구	12교구
교구장	하영수	전기섭	오정수 김상철	임훈규 김세재	성준경 최학인	노송성 민순구	이영기 박두호 김영준	홍성주	윤봉준	최중시 윤찬오 이완형 이복규 이관규	김사무열 박철훈 노문환 왕경래	김광신 이변생 임상현
간사	정동호	최홍렬	탁경준	최차순	우상태	장영일	이상호	유형석	이동만	권장환	송인권	오광환
	김은태	이지혁	최일춘	박미혜	최소희	김정란	함은희	김정운	최영란	한명순	김예영	위성남
	김인숙											
	박영자											

▶ 찬양대

찬양대	직임	이름
가브리엘	대장	노문환
	부대장	이태상
할렐루야	대장	성준경
	부대장	김금준
임마누엘	대장	임상현
	부대장	김형택
베들레헴	대장	이완형
	부대장	백수남
호산나	대장	박우옥
	부대장	황인숙
시온	대장	하영수
	부대장	최형렬
글로리아	대장	노문환
	부대장	이영자
필그림 종창단	대장	노문환
	부대장	이학주
아멘 관현악단	대장	노문환
	부대장	송인권
은빛	대장	이은선
	부대장	원복순
Hand Bell팀	대장	김규태
	부대장	김인숙
갈렙	대장	민순구
	부대장	김정희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딤후3:15)

▶ 교회 학교

교육국 국장	부서명	부장	남자부감	여자부감
교육1국 오정수	유아부	이관규	김시환	전용순
	유치부	이계홍	김종운	남태순
	유년부	신용식	최양진	전정숙
	초등부	오정수	마상수	이혜순
	어린이오후예배	조정식	최규초	정정숙
교육2국 노송성	중등부	서춘식	이태원	김운자
	고등부	오광환	박병수	김현정
교육3국 김광신	대학부	이학주	김대웅	김예환
	청년부	송인권	최차순	안분선
	새가정부	김광신	이동만	손재검
교육4국 김세재	사랑부	이승우	김현영	여영숙
	에비다부	홍성주	안인호	왕경희
	새가족부	김세재	강석우	이영희
	영어성경부	이갑진	김 훈	윤갑숙
교육5국 이영기	30대부	이남성	이영조	이영숙
	40대부	김인수	손병석	정연택
	50대부	황정옥	윤성남	안정옥
	60대부	신순우	장양일	김혜경
	70대부	박두영	이재운	김경희

70인 전도대 보고 -한티공원에 부러지는 복음의 씨앗-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겠으나 모든 사람이 다 이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세상은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힘든 복음전파의 대열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는 하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하기도 어렵고, 하라고 강요하기도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머지 않아 앞장 설 것이기 때문에..... 지난 10월 20일 이후 매주 토요일 오후 대치 역에서부터 한티 공원에 이르는 길목에서 전도에 열중하시던 장로님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고 그날 맺어진 결신자들이 주일에 교회를 찾아 등록을 하는 열매를 맺었다. 장로님들이 전도에 앞장서신 것이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기다리시는 영혼들을 향해 항상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실천하며 깨우쳐주고 있었다.

지난 24일(수) 오후 2시,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의 자매결연식이 대치역 구내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지하철 선교회 총회장을 비롯, 유중현 지하철 선교협의회 사무총장, 김재진 대치역장 및 여러 역무원들과 서울교회 성도들이 100여 명이 넘게 모였으며, 대치역 구내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이준윤 당회장 목사의 말씀 선포로 또 하나의 예배당이 되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이 프린트된 플랜카드가 성도들의 아멘 소리와 화답하며, 자매결연식 장을 지나는 승객들에게는 복음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시편 79편 9절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한 이 목사는 바울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존재임을 가르친 것처럼, 가장 높은 신앙의 표준이요 가장 안전한 행동의 기준이자 가장 확실한 기도의 근거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붙들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출입하는 대치역을 내 가정처럼 돌볼 것과 이곳에서

대치역 자매결연식 스케치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역무원들과 승객들을 내 가족처럼 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섬길 것을 권면하였다. 결연예 증정식에 이어 김재진 역장은 인사말에서 24시간 시민안전을 위해 철마와 싸우는 역무원들을 위해 서울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대치역을 이용하는 성도들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은 언제든지 시정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삼성역장에서 대치역장으로 부임한 지 1주일만에 서울교회와의 자매결연을 맺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하철 선교협의회 사무총장인 유중현 목사는 85년부터 시작된 지하철 선교는 현재 300여 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자매결연을 통해 서울교회는 대치역을 좋은 선교센터로 삼아, 이 역이 새로운 교구가 되고 이 역을 지나는 사람들을 새로운 교회일군으로 섬기는 부흥이 있기를 축원하였다. 이 날 자매결연식

에는 악보없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 호산나 찬양대, 대형거울을 증정한 바울선교회, 다과회를 준비한 에스더회 등 서울교회 성도들의 소리없는 섬김과 사랑이 벌써부터 대치역을 변화시키고 있었으며, 다과회장은 성도들의 열심으로 복음전도의 장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앞으로 서울교회는 지하철 벽면을 기독교 문화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더불어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가 밝아지도록 빛과 소금 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청소용역을 맡은 역구내의 아주머니에게 떡을 싸주시던 권사님, 대학시절 총장님을 이 곳에서 당회장 목사님으로 다시 만나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말한 뒷정리를 맡은 역무원, 계절감을 살려 대치역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자고 아이디어를 내놓는 성도님들, 주님 하시는 일마다, 함께 하시는 곳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다만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자들이니이다. 나소정(편집부)

소아시아에서 보내드리는 서신

전광예 선교사(터키)

옛날 사도 바울이 다녔던 땅에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십니까?

새 날을 맞이하면 새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할 우리의 일상 생활에 경악케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군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곳곳에 많은데, 복음을 듣고도 냉담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가득한데...

Nato 회원국인 터키는 이번 미국의 참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미국편이 되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공동체에도 회원국이 되려는 노력이 이들의 헌법을 바꾸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전파를 위한 유리한 법이 포함되어 있음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 생각됩니다. 이들의 주민중에 반드시 개제해야 했던 '모슬렘'이란 난이 없어진 것이고 집회를 열거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일에도 자유를 더욱 확장한다는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30~40년 전에 이곳에 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로 묵묵히 이 땅의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선배 사역자들의 수고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체 지도자들이 서서히 세워지고 있음은 겨자씨 같은 믿음의 진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소규모이고 미흡하지만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성경학교가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옛날 한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참 자유를 얻게 되는 비밀을 황무하고 광활한 심정들이 터키 백성들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젠 제법 기독교에 대하여 열린 마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경찰들에게도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 거리낌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엔 드러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었거든요. 늘 말없이 배후에서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으시

는 고국의 동역자들의 기도가 나를 담대하게 하며 이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2001년 첫 달부터 계속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있는 '알리 이흐싼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10년은 늙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출석은 계속하는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강요할 수 없어서 그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성령의 간섭하심이 그 형제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인되는 '아이레드'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오진 못하지만 저와 계속되는 교제를 통해 구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까지는 비자를 학생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데 계속 학생신분으로 있기보다는 다른 신분으로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다시 기억하면서 넉넉히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왔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섬기겠습니다

김기욱 권영철 집사, 김용준(2교구)

-아드님의 권유로 서울교회에 등록하셨지요?

5년 전에 작은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에 참여했다가 신앙생활에 기쁨을 갖지 못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쁨으로 섬길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던 중 아들이 외박을 나와서 함께 등록하자는 권유를 받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많은 복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주일성수하는 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남편 덕분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중 많은 굴곡도 있었으나 목수인 남편과 철물건계상을 하는 저나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킨 것이 제일 큰 복으로 압니다. 용준이도 어릴 때부터 아침에 깨울 때면 어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공부 좀 못하고 학교를 빼먹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 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 왔더니 부모에게 잘 순종하며 신앙생활 잘 하는 착한 아들로

키워주셨어요. 배운 것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을 보내는 중에도 주일을 성수했다니 구하지도 않은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서울교회에서 느낀 점은?

가슴을 치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고 12주 새가족부 과정을 마치고 갖는 수료식이 너무 은혜스러워 저희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박찬 감동과 기쁨을 맛보고 싶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겸손히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김기욱 권영철 집사 가정의 다양한 모습

- ### 동정
- 박정선 집사(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는 지난 11월 2일 단국대학교 개교 54주년 기념 학생지도 우수교수로 표창을 받았다.
 - 김옥순 목사(광주 벨렐) 김강용 생장5근기증
 - ☞ **금주 식사제공 가정**: 이찬호 집사 최정순 집사 가정 퇴원을 감사하며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1 사명자 대회 7대기도제목을 위하여
2. 목회자세미나, 성경대학, 경로대학, 주부대학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